

애통하는 사람들과 온유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음

2/23 월

마 5:4

4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7:17

17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3-10 (3-5, 9)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5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 줍니다.

7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2/24 화

마 5:3-4

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6:21

21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 3:12-16 (12-14)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16 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시다.

2/25 수

마 5:5

5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 12:3

3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였다. 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

히 2:5-8

5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8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눅 19:17-19, 26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네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18 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라고 하니,

19 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26 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마다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2/26 목

마 11:28-30

28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고후 10:1

1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전 6:9-10

9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들이나,

10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 5:21

21 시샘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 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엘 5:5

5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알겠지만,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2/27 금

마 5:9

9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 12:14

14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롬 15:33

33 화평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골 3:12-17 (14-15)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2/28 토**롬 8:14-19, 28-30 (14, 17, 19, 28-30)**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19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3/01 주일**마 21:1-11**

1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2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매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3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 줄 것입니다.”

4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걸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8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걸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9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대었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라고 하니,

11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신언자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였다.